

유영빈 · 이상현 조 당선

66.19% 지지 ... 선거인명부 논란으로 개표 중 양 후보측 철수

제3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결과 기호2번 유영빈(경영4)·이상현(야간 경영4) 조가 총 66.1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결과 총 유권자 1만2천911명 중 6천847명이 참여해 5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유영빈·이상현 조는 4천532명의 표를 획득해 66.19%의 지지를, 김규배·이홍범 조는 2천94표인 30.58%의 지지를 받았다.

당선 후 유영빈·이상현 조는 "학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부담이 크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보도)

또한 예술대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정기환(연극4) 군이 총 유권자 587명 중 435명이 참여

한 가운데 찬성 354명, 반대 76명으로 당선됐다.

한편, 이날 개표는 중선위의 선거인명부 논란으로 양 후보측이 개표장에서 철수해 진통을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옥·화공4, 이하 중선위)는 개표 직전 기호 1번 측이 "선거 전 열람한 선거인명부와 투표 때 사용된 명부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해 △투표대 사용된 명부를 기준으로 개표 진행 △두 명부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의 경우 원인 확인해 통보 할 것에 대해 양 후보측과 합의 후 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표 도중 기준이 된 명부의 날짜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기호 1번 측은 "원칙이 없는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이어 2번 후보측도 "상대 후보가 없

는 상황에서 개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 양 후보자가 불참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 중선위는 학교측에 선거인명부 2부를 요구했으나 17일과 24일 각각 다른 날짜의 명부를 받아 보관용과 확인용이 다른 명부로 선거를 진행했다. 이에 개표를 지연시키고 24일 명부를 기준으로 휴·복학생 등 명단에 누락된 학생 등을 확인했으나 기준으로 정했던 24일 명부가 17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임수옥 중선위원장은 "결국 후보자들이 열람한 명부로 선거를 진행한 것이며 17일자를 24일자로 착각한



지난 28일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것 뿐"이라며 "선거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선위는 "다른 선거인명부 2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며 스스로 책임을 물어 사과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교육개방 저지 움직임 확산

전국 대학생 총궐기 ... 양허안 제출 규탄 집중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결정으로 교육개방 반대운동 열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지난 28일 'WTO 교육개방 저지!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 공공성 쟁취! 3.28 전국대학생총궐기'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한총련, 전학협 등으로 구성된 교육학생연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번 총궐기는 약 7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교육개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교육해방연대 비대위 주창미(성신여대 총학생회장) 공동상임대표는 "교육개방이 되면 국가부담 교육재정이 줄어들 테다 규모가 막강한 외국대학교 경쟁하느라 등록금이 엄청나게 인

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을 개방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몇 년 사이 대학등록금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어 김성훈(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국공립대 대표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율이 높으면 등록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립이 교육개방을 저지한 것처럼 우리도 힘을 모아 개방을 막고 교육재정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결정 철회 △교육재정 7% 확충 △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마련 △교육 시장화 철회

△공공성 확보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총리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불발됐다. 대정부교섭단의 시립대 대표 손지승(단국대 부총학생회장) 군은 "총리 대신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대답을 회피해 실질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총궐기는 종로거리 행진에 이어 성신여대에서 열린 교육투쟁 문화제로 마무리됐다.

양허안 제출 마감일은 오늘(31일)이다. 진주교대, 단국대 등은 동맹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개방결정을 물리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qwertvq@dongguk.edu

정통과, 'IT분야 교과과정 개편사업' 선정

실습실 신설·기자재 확충 ... 실무·현장 교육 중심

본교 정보산업대(학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정보통신공학과가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IT분야 교과과정 개편 사업'에 선정돼 공용 실습실 시설과 실습실습기자재 등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정보통신부가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현장교육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해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공학과는 △소프트

웨어 확충 △팀프로젝트 확충 △실습실습 확충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약 3.5:1의 경쟁률을 통과해 선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우(정보통신공학) 교수는 "본교가 공학인증과목 시범학교이면서 최초로 인증제를 도입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으로 정보통신공학과는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해 △공용실습실 시설 확충 △신규실습실 마련 △새로운 컴퓨터 설치 등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시험실습 위주로 강의의를 개편해 실무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정보산업대학장은 "IT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실무교육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정보통신공학과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대 학생들에게도 실습기자재가 확충되는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설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등

취업지원팀이 2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국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 신청을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실시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취업대비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개설과목은 영어회화 등 교양필수과목을 비롯해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인간관계 향상 △전문능력 향상 과정 등 취업관련 과목이며 대부분 사이버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개설과목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4학년 1학기까지 성적 3.5 이상 △토익(인문 850·이공 800)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사회봉사활동 36시간 이상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졸업시 인증서가 발급돼 취업시 우선적으로 추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까지 2년 동안 이뤄진다.



민중의 힘으로 ...

각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9일 종로에서 민중대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쟁·피병 반대, 교육개방 반대 등을 소리 높여 외쳤다. 또한 성조기로 덮인 국회의사당 건물을 태우며 미국에 좌우되는 정치를 비판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농구부, MBC배 출전

본교 농구부(감독=최성오)가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11개 대학이 출전해 잠실체육관에서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본교는 다음달 1일 오후 12시 30분 단국대와 대회 개막전을 갖는다.

한편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는 경성대와의 첫 경기에서 9:7로 패했다. 2차전은 한라대와 오늘(31일) 인천경기장에서 열린다.

보리소

'화' 대신 '선물'로 되돌려 주자

마음을 다스리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세 가지인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화를 불교에서는 삼독(三毒)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죄악과 윤리적인 부도덕(不道德)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국한시켜 소홀히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업종생들의 문제로 확대될 때에는 크나큰 재앙과 파멸을 가져온다. 개인의 화가 집단의 화를 불러오고, 집단의 화는 전쟁까지

불러온다.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화를 동반할 때는 국운을 좌지우지 하는 불행한 결과까지 초래한다. 따라서 크고 작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벗어지는 화와 노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화를 극복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화를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사람을 대면했을 때 진정한 승리가 되라 하셨다. "노여워하는 자에게 노여움으로 되받는 것

은 나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노여워하는 자의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되받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승리를 얻는 것이다. 진심으로 자기를 진정시키는 자는 곧 스스로를 이길과 동시에 또한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라."

틱낫한 스님은 화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나 도리어 그에게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한 마음이 가라앉고 화가 풀리며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오히려 그가 행복해지길 바라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

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그에게 선물을 주자. 선물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생겼던 화가 사그라들 것이다." 틱낫한 스님 자신도 고백했지만 화를 가져다 준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쉽게 옮겨지는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행복과 평화를 가꾸고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한 번쯤 노력해 보기도 행복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 아닐까 싶다.

소운 스님
불교문화연구원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 노영현 (불교대1)
- ▲ 황주상 (불교대1)
- ▲ 최혜진 (사과대1)
- ▲ 김지희 (사과대1)
- ▲ 설윤진 (사과대1)
- ▲ 손주연 (인문대1)
- ▲ 이부배 (인문대1)
- ▲ 채혜순 (자연대 가교1)
- ▲ 이순재 (자연대 가교1)
- ▲ 김영화 (자연대 가교1)
- ▲ 유진아 (자연대 가교1)
- ▲ 전승혜 (자연대 가교1)
- ▲ 김연수 (자연대 가교1)
- ▲ 김성군 (관광대1)
- ▲ 김이선 (공학대1)
- ▲ 윤종호 (관광대<야>1)
- ▲ 김진영 (공학대<야>1)

- 이상 3월 31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이라크 민중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는 미국. 미국의 무차별한 폭격 속에 희생당한 많은 이라크 국민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미국의 침략적 전쟁에 동참하는 파병, 당신의 아들이라도 찬성하시겠습니까?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3면 신임처장 릴레이 인터뷰

지난 1일 대대적인 보직인사가 단행됐다. 이에 본사는 신임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5면 저자와의 만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저자 최장집 교수와 전동명(정의4)군의 대화를 엿본다.

8면 색깔문화

색의 사회문화성과 심리적·산업적 특성을 알아본다.

오늘(31일) 학생대표자회의 등록금투쟁 방향 논의

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늘(31일) 오후 2시 불상 앞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선출된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과 학생대표자들이 만나는 첫 자리로, 앞으로 진행될 등록금투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가 구성된지 얼마 되지않아 준비가 미흡하지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 주차 일부 통제 대운동장 임시주차 가능

턱났한 스낵 초경량연회가 열리는 오늘(31일)부터 3일간 학내 주차가 일부 통제된다. 주차금지구역은 △만해관광장 진입로 △분관·명진관·구도서관 앞 △중앙도서관과 상록원 사이며, 만해관광장 입구에서 교수회관 입구 사이는 행사가 진행되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행사기간중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대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채용설명회 개최 다음달 3일 중강당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3일 오후 5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대우건설 인사관리팀 관계자가 진행하며 기업홍보를 비롯해 취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모집분야는 △건축·토목 △전기 △기계 △상경 △법정 등이며, 응시자격은 76년 이후 출생자로 신입사원의 경우 2003년 2월 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 인턴실습생은 3, 4학년 재학생이다.

졸준위, 졸업앨범 업체 선정 3개 업체 경합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형·토목4, 이하 졸준위)가 2003학년도 8월과 200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앨범 업체선정을 오늘(31일) 원흥관 E103강의실에서 진행한다. △광개토대왕 △LG기회 △세븐빌라 스튜디오 중 1곳을 택하는 이번 업체선정은 투표 전 업체들의 앨범 설명이 진행된 뒤 졸준위 위원과 4학년 각 과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각 업체들은 이미 사진촬영 테스트와 앨범전시를 한 바 있다.

입학안내 홈페이지 대부분 '만족' 신입생 대상 입시홍보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각 대학이 2004학년도 입시전형 요강을 발표하며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교 입시특별연구위원회는 지난해 1천56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시홍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진행된 홍보방식에 대한 신입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지원 대학선정에 가장 유용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32.0%의 학생이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입학(입시)안내 인터넷 사이트(27.2%)'라고 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교의 입학안내 홈페이지는 수험생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도움 정도에 대

해 응답자의 48.9%는 '도움이 됨'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도움이 됨'이라고 답한 학생이 26.7%를 기록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구성이 복잡하고 산만해 필요한 내용검색이 어렵다(25.6%)', '새로운 내용이 수시로 추가되지 않는다(20.6%)'라고 답해 홈페이지의 신속한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홍보와 자료 제공방법으로는 26.5%가 '고교나 해당지역방문 입시설명회 개최', 20.2%가 '학생들을 본교에 초청 학교설명회 개최'라고 답해 수험생과 학교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외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연합 입시



휴연? 금연! ... 학내 곳곳에는 금연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휴연 학생들이 간접휴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 휴연자들은 이제 '타인의 권리'도 배려해야 할 때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총대, 특별·새터부정기 감사 실시 새터 자체감사 전 사전교양 실시 예정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가 특별감사와 새터부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특별감사 해당 단위는 △총학생회 비서대책위원회 △교외편입위원회 △생자대 △공대이며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각 단위별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영수증 △공전출납

부 등으로 다음달 4일까지 총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감사 다음날 대자보를 통해 공개되며 각 단위별로 감사결과 수령 후 2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새터부정기 감사는 각 단과대 대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K21 연구교수 모집 '불교문화사상사' 분야

본교가 불교문화사상사 분야의 BK21 연구교수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본 연구단에서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사업운영지침 및 내규에 부합하는 자 △본교 불교학과에서 학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며 △서류전형 △영어·전공 필기 시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어, 전공 두 분야에 걸쳐서 시행된다.

Table with 2 columns: Event Name and Details. Includes '단과대 해오름식' with details like '날짜: 4월 3일', '장소: 두리터', '경연대' with '날짜: 4월 11일', '장소: 통일광장', '사범대' with '날짜: 4월 4일', '장소: 중강당', '아간강좌 총학생회' with '날짜: 4월 2일', '장소: 통일광장'.

제 35대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소통 가능한 학생회 만들 것" 학생회 신뢰 회복·등록금 문제 등 해결



김진성

제3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결과 기호 2번 유영빈(경영4)·이상현(야간 경영4) 조가 총·부총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접속속도가 느리다(21.8%)", "기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교는 수험생에게 E-mail 보내기, 입시관련 기관 홈페이지 배너광고 확대를 통한 접수사실 확인과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접속속도가 느리다(21.8%)', '기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교는 수험생에게 E-mail 보내기, 입시관련 기관 홈페이지 배너광고 확대를 통한 접수사실 확인과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접속속도가 느리다(21.8%)', '기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35대 총학생회의 최우선 과제는. = 그동안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소통 가능한 총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의 수요정기 만남,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경우 총학생회 내에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를 위한 팀을 만들고 홈페이지 제작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근거제시 없이 인상된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 일단 학교측에 인상근거 제시를 요구할 생각이다. 또한 그동안 인준된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에 이어 등록금을 쌀 등으로 납부하는 '현물납부'나 총학생회

4.19 등산대회 신청 접수 다음달 1일부터 교학과·학생복지실에서

학생복지실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제34회 4·19 동국인 등산대회 접수를 받는다. 4·19를 맞아 선열의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4·19 혁명 기념 추모식 △등산 △종식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교·직원, 학생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전무대 비밀 다이어리

O...요즘 몇몇 학생회실에서는 갈 곳 없는(?) 다이어리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는데. 알아보니 다이어리 배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생들이 다이어리를 찾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다이어리를 학생회비로 구입한 만큼 학생회는 배부시기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다이어리비용 지불할 의무는 있어도 언제 배부되는지 알 권리는 없다(!)"

자유주차

O...원흥관 4층 휴게공간을 지나는 학생들은 유난히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유인즉 음료수 운반 등의 시설 차량이 운반의 편리를 위해 휴게공간 입구 바로 앞에 불법으로 주차했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인 만큼 안전과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 원흥관 주변의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주차, 하기는 쉬워도 해야 할 곳에 하기는 어렵다(!)"

무법자

O...최근 홈페이지 '나의 주장' 접속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익명을 이용해 몇몇 학생이 다른 학생의 주장을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기 때문이라고. 외부인이 접속하고 신입생의 이종대 많은 만큼 이 같은 행동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축구장의 난동꾼 훌리건, 동국대 홈페이지로 잠입하다(!)"

나만의 공고(?)

O...지난 보궐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학교를 돌아다니며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 알아보니 후보자 공고문을 비롯한 유인물 등이 낱사가 됐거나 찢어져 있는 등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이는 타 학생들이 후보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1만 2천을 대표해 유인물을 봐도 투표권은 환표(!)"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이수 신청안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3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Dongguk Career Elite Program은 취업을 위하여 저학년부턴 체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다양한 강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매년 2학년 1학기 재학생 모두.
2. 신청방법 및 기간 : 2003. 4. 7(월) ~ 18(금)까지 취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사진1장 필요함).
3. 교육내용
프로그램 강의명 학점 학년 이수구분 비고
외국어능력 영어회화 I, II 각1학점 1학년 교양필수 기 개설
실용영어 I, II 각1학점 1학년 교양필수 기 개설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과 실습 I, II 각1학점 1학년 교양필수 기 개설
의사소통능력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1학점 2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비즈니스 협상스킬 1학점 2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대인관계능력 인간관계 향상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갈등관리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창의력 개발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자기관리능력 전문능력향상 과정 1학점 4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성공인의 자기혁신 과정 1학점 4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사회봉사활동 각종 사회봉사활동 실적 36시간 이상(1학점) 참사발 봉사단
* 기 개설된 강좌는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의함.
4. 인증기준 : 4학년 1학기까지 DCEP교육내용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4학년 1학기까지 성적 3.5 이상.
- 외국어 토익(850/인문, 800/자연), CET(250), 텡스 780점 이상.
- 워드프로세스(1급), 인터넷 정보 검색사(2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중 1가지 이상 취득.
- 사회봉사 활동 36시간 이상.
5. 혜택
가. 졸업시 인증서 발급 및 학적부에 인증자로 등재.
나. 외국어 시험 응시로 지원.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신청 후 최초 응시 점수를 기준으로 차회 응시 성적이
- 100점 이상 향상 시 : 응시료 전액 지원(도서관료로 지급).
- 단, 토익 이외의 시험의 경우와 지원 회수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원함.
다. 취업시 최우선적으로 추천.
라. 방학기간 중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마. 국내 주요 대기업에 인준자 명단 통보 및 홍보.
6. 기타
2학년 1학기 중에 신청자에 대한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취업지원팀 전화(2260-3055)나 e-mail(dcep@dongguk.edu)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K21 연구교수 선발공고

- 1. 인원 : 0명
2. 분야 : 불교문화사상사
3.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본 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사업운영지침 및 내규에 부합하는 자
라. 본 불교학과에서 학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영어·전공 및 면접
5. 원서접수 : 2003. 3. 24(월) ~ 4. 4.(금) 오후 5시 마감
6. 지원서류
가. 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 부.
나. 연구실적목 록(특허포함, 제목, 연구자, 발표자, 발표일자, 논문개요순으로 기재) 1부.
다. 임용후 수행 연구계획서(2,000자 내외의 분량) 1 부.
라.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 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각 1 부.
바. 연구실적물(석?박사 학위 논문 및 '99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논문, 저서 등) 각 1편
7. 시험일시 : 2003. 4. 10(목), 9:30 ~ 12:10
가. 영어 : 9:30 ~ 10:30 (60분간)
나. 전공 : 10:40 ~ 12:10 (90분간)
* 원서접수자는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연구지원팀으로 방문.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응원 안내

2003년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예선 1차전 경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1. 일 시 : 4. 1(화) 12시 10분
2. 장 소 : 잠실 학생체육관(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3. 경 기 : 동국대 vs 단국대
4. 무료입장권 배부 : 동국대 재학생(학생증 지참) 12시 10분까지 잠실학생체육관 선착순 입장 100명 (현장에서 ₩3,000 입장권 무료 지급)
5. 기 타 : 백상응원단 응원
6. 연락처 : 2260-3477 ~ 8, 019-299-0315(김영수 과장)

체 육 실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Tutoring session) 운영
이과대학 수학과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수학교과목인 일반수학, 수학기초, 응용수학 등에 대하여 개인교습실(Tutoring session)을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장 소 명진관 세미나실 (A402)
▶일 시 월 15:00 ~ 16:30 화 15:00 ~ 16:30 목 15:00 ~ 16:30

신임처장
릴레이 인터뷰

- ①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 ② 기획인사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본교는 지난 1일 대대적인 보직인사를 개편했다. 이에 두차례에 걸친 신임처장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기획인사처장 이명환 교수

규정 제·개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교직원 인사관리 등 정책 입안에서부터 추진, 결과 평가까지 담당하는 기획인사처는 본교의 핵심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신임 기획인사처장 이명환(경제학) 교수를 만나 2003년 예산안, 교수 채용 문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기획인사처

“4월 중 구체적인 예산안 공개할 계획”

- 취임 소감.
=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기획인사처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다.

- 예산안 최종 확정과 공개의 시기는.
= 늦어도 4월중에는 확정된 예산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 예산안의 관·항·목, 즉 가급적 구체적인 부분까지 공개해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가, 등록금이 교육여건 개선에 적절하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겠다.

- 교수 채용과 확보는 교육여건 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 교수 채용 절차가 합리적인지 검토한 후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 정기적인 교수 총원과 함께 우수 교원의 수시적 채용도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연구지원이나 급여 등이 예산과 관련된 만큼,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고 추진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각종 규정은 수정·보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총장 직속 기구로서 건의와 자문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교수는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종합, 반영해 결과적으로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사설

교육개방은 안된다

지난 27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교육부 1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교육시장 개방의 '문고리'를 잡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개방의 '문'을 열어젖힐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

우리나라에 설립될 외국대학들이 공공의 관리와 감독으로부터 '자유화'돼 사적 영리를 추구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어느 교육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미국, 영국 등은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현지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한다. 대학의 84%, 고등학교의 60%가 사립학교인 한국은 그들에게 '영양가'가 풍부한 노른자위일 뿐인 것이다.

이들에게 '영양'이란 결국 '돈'이다. 결국 고액등록금에 허덕여야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돈 없는 사람은 대학 못 다니는 것이 '상식'이 될지도 모른다.

교육재정의 '분담'도 문제다. 외국대학에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을 나누어 주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 돌아오는 교육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교육재정 6%도 채우지 못해 허덕이는 관공에 말이다.

사람들은 교육개방을 두고 "해외유학 가는 것보다는 싸게 먹이지 않겠느냐"고 반문 하지만 교육개방의 실상은 이렇다.

때문에 '교육개방 반대, 양허안 제출 철회'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이미 대학가에는 '교육개방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 27일 단국대가 동맹휴업을 시작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서울·공주·광주·청주·진주·전주교대도 수업거부를 위한 총투표를 성사, 동맹휴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개방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담지 못한 독단적 결정은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외쳐온 여러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대학생, 교수 등 관련 이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돼야 할 교육을 교역대상인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을 말이다.

앞서 강조했듯 교육개방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신중함 재검토로 부디 '열지' 않기를 바란다.



연구처장 윤인형 교수

연구처

“학문에 따른 업적평가 기준 마련할 터”

정서서비스를 하는 곳인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그동안 계열별로 한 명씩 추천했던 '교원업적평가중앙위원회' 위원을 각 단과대에서 한 명씩 추천해 위원들로 하여금 각 대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사업과 학술대회관련 교내연구비 인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교원업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각 과 교수들이 학문 특성에 맞는 평가규정을 자치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생각이다.

또한 양에 의존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상위대학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우선 연구실적의 양에 중점을 둔 다음 질적 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 지대대학과 교환학생 피견 등의 실질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 우선 교류 대학을 확대하기보다 현 자체결연 대학과의 실질 교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교학 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강좌를 영어로 개설해 해외유학생 유치율 높이고 우리 학생들의 해외 교환과연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번역·저술 외에는 교내 연구과 제공모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고, 외부 연구과제공모가 있으면 즉시 교수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할 생각이다. 또한 연구공간에 대해 재검토하고 조정할 생각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제2의 예수강림?



권용범 총무처장

총무처

“직원 다면평가 통해 공정한 인사할 것”

= 본교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4면평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3캠퍼스를 건립해 학교기공과 학생을 분산시켜야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와 앞 지하 주차장 건설 등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또한 학내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 외부공간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기숙사는 지역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지만 공간부족으로 학내에 짓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공간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또한 낙산학사의 건물도 노후해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신축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공정한 직원인사를 위한 방안은.
= 인사의 공정성은 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사발령 시기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서로의 기준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평가항목

에 동료 직원들의 평가를 추가하고 성실성, 능력 등도 반영하는 다면평가 시행을 검토하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직원의 역할은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열중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대가 전문인을 요구하는 만큼 직원도 교육 등을 통해 대학행정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간	구본철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357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금강삼매경론(상,하)
조용길, 정통규 옮김
상 : 474면 / 17,000원 / 하 : 573면 / 20,000원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당(唐)나라 초기까지 중국 불교에서 제기된 공(空)사상·반야(般若)사상·화엄(華嚴)·제가불교(在家佛敎) 등의 모든 교리를 다루고 있다.

법화·천태사상연구
이영자 / 469면 / 16,000원

이 책은 모두 세장으로 구성되어 천태사상의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 천태사상의 전개까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불교와 종교철학
김홍표 저 / 385면 / 15,000원

종교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해 불교를 보편적 조망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불교와 도가사상
김홍배 저 / 388면 / 12,000원

이 책은 도가사상을 연구하면서 불교와 도가사상과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저자가 사유경험·인식 방법론·참자아 증득의 측면에서 이 두 사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한 책이다.

불교가사 원전연구
임기중 저 / 1155면 / 60,000원

신라 원효대사의 작품에서부터 20세기 춘원 이광수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불교가사 원전108편을 모두 모아서 한글원전을 주석하고, 그것을 다시 국한혼용문으로 표기하여 한글현대문으로 각각 대비하였다.

불교가사연구
임기중 저 / 486면 / 19,000원

이 책은 저자가 앞서 출간한 '불교가사 원전연구'에 실린 불교가사 원전10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목적배 저 / 487면 / 15,000원

한국불교학에 관련된 논문들이 다방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순수불교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모으고, 제2편에서는 계율의 본래적인 의의를 논하고, 제3편에서는 한국불교의 신앙에 관하여 논하고 있으며, 제4편에서는 '한국의 불교운동사'를 통하여 근세의 불교상황을 자세하게 논하였다.

숨어있는 황금의 꽃
고재석 저 / 356면 / 11,000원

이 책은 '한운운의 문학과 그 시대', '1910년대, 그 소외된 문학과 작가', '현대문학사 그 어둠과 그 너머로' 총 3부를 통해 불교문학이 사실은 불교와 문학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성과 속이라는 이를 배반적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역설적인 문학이라하며 침체된 불교문학에 작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불교전서전집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
각권 80,000원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불교계의 고승석덕, 명현 학자들이 남긴 옛 문헌들을 발굴 수집하여 전 13책으로 출간한 한국불교관계 학술자료의 대총서.

김원웅 의원 인터뷰

지난 28일 이라크 전 파병안 처리가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기됐다. 파병안 처리 지연과 정은 파병 자체에 대한 판단을 떠나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전 원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파병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 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김원웅 의원(개혁당·대전 대덕)은 대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전쟁 발발 당일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전쟁지지 및 파병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파병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김 의원이다. 이에 본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김원웅 의원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누구나 살인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지난 27일 자신의 사무실에 마련된 농성장에 앉아 있는 김원웅(개혁당) 국회의원의 모습.

파병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김 의원을 만나러 가는 발길은 더 달 수밖에 없었다. 신분증은 물론 가방 속까지 보여주기를 여러 차례 해야 했고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질문지 복사본까지 내 놓아야 했다. 이라크 전쟁 파병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의 사무실 풍경도 여느 때와 달랐다. 'Worst Peace Is Better Than Best War' (가장 나쁜 평화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더 낫다) 사무실 앞에 붙여진 글귀다. 바닥에 깔린 매트와 한 칸에 놓인 이부자리는 그가 '밥쟁' 농

성' 중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견해는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냐와 직결된 문제다. 때문에 이날 인터뷰에서는 파병논란과 함께 전쟁위기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 이라크 전쟁 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강탈하기 위한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다.

최소한의 요건인 UN 승인도 받지 못한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보낼 수는 없다. 또한 파병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김영삼정부는 미국의 동맹관계에 충실하였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94년 북핵위기 때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쪽감행을 추진하지 않았나.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호소력만 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놓고 한반도 전쟁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

- 미국은 그동안 "북한은 이라크보다 대화의 여지가 더 많다"고 여러 차례 못박았는데.

= 북한과 이라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에는 석유가 없다는 점 뿐이다. 오히려 유엔안보리 이사국 중에는 이라크보다 북한 공격에 찬성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이라크보다 미국에게 공격 당할 빌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

- 파병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 우리보다 대미 경제의존도가 강한 멕시코와 기니, 칠레와 같은 국가

들도 전쟁에 반대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기적인 국가로 찍힐 것이다. 아랍 13국과 유럽 주요국가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도 고려해야 한다.

- 의무병 파병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 공병과 의무병은 전투병이 아니므로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탱크가 지나갈 길을 '닦는' 공병은 전투병보다 더욱 '전투적'이다. 의무병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침략전쟁을 돕는 군대일 뿐이다. 누구나 '살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진정 인도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시민단체들과 의무지원단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옳다.

-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먼저 미국에게 선택적 군사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파병안 처리가 중요하다. 파병안 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미국과의 대화에서 우리정부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논란이 됐던 대북송금은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다만 북한에게 그들의 군사력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민족 공조와 한미공조가 총동원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한미공조를 미국은 남북공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 파병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노 대통령의 단호한 전쟁지시 및 파병 발원에 머뭇거리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의원들과 토론하는 사이 파병에 찬성하던 의원들이 유보로 돌아섰고, 입장을 유보하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파병반대로 돌아섰다(다음날 71명의 국회의원이 파병안 처리지연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앞으로 최대한 표결을 늦춰 더 많은 의원들에게 사안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itsU@dongguk.edu

반전 평화 외침 동약에서는 '썰렁'

"김00~" "네"
지난 28일 국회 앞에 마련된 파병반대 농성장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름 아닌 한신대 신학과 학생들의 '야외수업' 출석점점. 이들은 교수님의 양해를 받아 강의실 대신 집회참가로 수업을 대신하기로 하고 전세버스까지 빌려 이날 농성장에 모였다. 출석율은 90%에 육박했다.

대학가 반전운동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맹휴업이다. 이화여대, 부산대,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는 전교생 총 투표를 거쳐 2~3일간 전쟁반대 동맹휴업을 결정할 예정에 있거나, 이미 결정한 상태다. 앞서 소개한 한신대와 같이 야외수업을 진행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이라크 전쟁 관련 특별수업을 개설한 학교도 있다.

특히 몇몇 대학에 구성된 반전위원회는 대학의 3주 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반전운동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내 14개 단체가 모인 고려대 반전위원회는 1인당 1천원씩 모금해 일간지에 전쟁반대 광고를 내는 '2천명 연서운동'을 진행해 큰 반응을 얻고 있다.

"학내 3주체 참여하는 반전위원회 구성을"

그러면 우리학교의 반전운동 움직임은 어떨까. 적극적인 반전운동은 이 달 초 진행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위원장=유병규, 이하 민노동학생위)의 반전서명운동이 전부다. 이 외에는 사회과학 관련 학과 소모임에서 이라크 전쟁 관련 세미나를 열거나 자체 토론회를 진행한 정도다. 총학생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반전운동이 어려워 아직까지 적극적인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게 학생들의 지적이다.

민노동 학생위 유병규 위원장은 "총학생회가 구성되는 대로 학내 제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반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에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 또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전위원회 구성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오늘(31일) 전쟁반대·파병반대를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준 교수(국문학)는 "총학생회가 구성된다면 학부학생들과도 함께 반전운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동약로

'어수선' 거(?)



"저기 있는 중선위원은 개표준비 안하냐?"
"벌써 5분째 선관위원들과 잡담하고 있네."

지난 28일 새벽, 제3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된 중강당의 분위기는 개표현장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수선했다.

몇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옥·화공4, 이하 중선위) 위원들이 잡담을 하는가 하면 개표시간을 엄수하지 않았고 개표가 지연되자 잡담이 자는 등 안일한 모습이 계속됐다. 선거규정에 중선위원과 참관인들의 대화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엄숙하고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중선위원들의 역할로 미뤄볼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게다가 개표진행 도중 한 중선위원은 심지어 개표장에서 철수한 어느 후보자측을 따라 개표장을 이탈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남은 개표는 뒤로한 채 퇴장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같은 선거관리 위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비단 개표장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다른 단과대에서는 투표가 이미 끝났는데 우리 단과대는 왜 아직까지 진행하지?"

투표 마지막날, 두개 단과대의 선거관리위원이 예정된 시각 10시보다 50분 늦게 도착했다.

때문에 투표 종료시간도 세척에 명시된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늦춰지는 어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선거는 몇몇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관위 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채 어수선했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선위는 각 선관위원들이 기본 자세와 역할을 충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이번 보궐선거는 마무리됐다. 중선위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음 선거에는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저자와 독자의 이유있는 '만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저자 최장집 교수

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문적 혹은 교양적 지식을 전해 준 저자. 그리고 그 책을 열심히 읽어 나름의 지식을 얻게 된 독자. 이들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학술면에서는 3회에 거쳐 저자와 학생 독자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

전동명 (정외4)



노무현 정부 탄생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하다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최장집(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정치외교학)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를 저술한 이유의 첫머리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이하 민주화...)'를 통해 한국민주주의의 부정적 역할에 대해 비판한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수화된 원인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기원을 분석하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에 부정적 논조를 많이 띄웠잖아요. 민주주의를 오프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관문인 셈이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가느냐, 지속시키느냐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협소한 정당체제 변화해야

전 = 교수님은 '민주화...'에서 '참여와 대표성의 위기'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당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냉전·반공주의에 의해 정당체제가 협소해졌고, 보수적인 여당과 야당, 즉 실질적으로 뿌리가 같은 두 당에 의해 다양한 이해가 대표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는 군소 정당이나 힘없는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최 = 다양한 사회 갈등과 이해들이 대표될 수 있는 구조로 정당이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정당이 대표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죠. 또 새로이 만들어진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선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을 찍는 비판적 지지를 막고, 군소 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요.

전 = 그런데 거대정당 이외에도 민주노동당, 사회당, 개혁적 국민정당 등 예전에 비해 정당의 수가 많아지기는 했잖아요. 이것을 정당체제의 지평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최 =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주목을 끌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당체제의 변혁을 가할 만큼 큰 변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보수와 수구 이념만을 대표하는 정당이 절대 우위에 있고, 계층적·계급적·직능적으로 분류되는 모든 집단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전 = 민주주의는 서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이 곧 정치이기도 하고요. 정치 영역, 정치 공간 자체를 이해하는데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최 =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갈등, 요구들이 표출되고 경쟁되며 조직과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정치적 갈등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탈정치화의 논리이자 소외된 사회 계층들의 이익과 갈등이 대표될 수 없게 하는 억압적 구조를 낳는다고 할 수 있어요.

갈등이 제한없이 표출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공간, 다양한 활동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적 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전 = 마지막으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생각을 여쭙보고 싶어요.

최 = 항상 열린 대안을 생각 해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식인은 바로 그 '어떻게'에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관되고 지속적인 시민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지난 27일, 몇 번을 읽었는지 이미 너털해진 '민주화...'를 들고 온 전동명 군. 그와 함께 최장집 교수가 있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찾았다.

'민주화...'와 현 정치를 논하는 최 교수와 전군의 대화는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그들의 대화를 들여다보자.

'민주주의 위기' 탈피 위한 전환점에서

전동명(이하 전) = 우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기는 하지만 한국정치사, 한국정치론과 같은 전공서적들은 어렵게 쓰여진 경향이 많아 솔직히 재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민주화...'는 읽으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거든요. 현실 정치와도 연결돼 있어 항상 옆두에 두고 떠올릴 수 있었어요.

'민주화...'는 16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쓰여진 것인 만큼 그 이후부터 현 상황까지의 일들에 대해 책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교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16대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더 보수적인'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 민주주의로의 이행, 변화를 가져오는 이행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냉전·반공주의의 하의 권위와 지배구조가 여러 영역과 수준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가져봅니다.

전 = 정권 초기,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두 대통령 다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투쟁의 경험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정당에 대표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죠. 또 새로이 만들어진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선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을 찍는 비판적 지지를 막고, 군소 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요.

최근 사례로 살펴보면, 검찰로 대표되는 행정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둘러싼 과정에서 그런 기득권층의 저항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물론 보수 언론이 검찰

수 언론권력, 사익(私益) 집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고, 결국 초기 기대와 달리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최근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의 문제로 각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관되고 강력한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장집 교수(이하 최) = 87년 민중세력의 '운동'에 의해 촉발된 민주화는 시작 시점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해체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운동'이 다시 부활했다고 할 만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이것이 선거 과정과 결합해 노무현의 승리를 가져온 중요한 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는 한국의 민주화가 아직도 정당을 통해 제도화된 형태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술단신

제2대학 주최 '반전평화' 강연회 오는 6일 연세대에서

제2대학이 주최하는 '반전평화' 강연회가 다음 달 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다. 두 개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에서 정세진 중앙대 교수가 '이라크 전쟁과 국제 질서'라는 주제의 강연을 오후 1시부터 진행한다. 또한 서보혁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오후 3시 30분부터 강연을 예정이다.

교수동정

△유은주(철학) = 세미나 참석 위해 지난 26일부터 3일간 중국 북경대 방문. △윤성이(생명자원유통산업학) = 환경관리공단 과제수행의 현지조사와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워크샵 참석 위해 지난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일본 동경 방문. △임기현(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 국제학술대회 기관인 DASFAA 위원으로 회의 참석과 워킹과제 연구 필요 자료수집 위해 지난 25일부터 5일간 일본 교토 방문. △민병록(영화영상학) = 북한영화사영 및 영화인 교류협약차 지난 30일부터 내일(1일)까지 중국 북경 방문.

주/제/서/평

한총련 수배자의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해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는 위와 같이 모든 사람의 사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실제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해 무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한총련'이란 이름만으로 7년여 동안 수배자로, 수감자로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있다.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8년 동안 공간기관에 의한 무제한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실제 감옥은 아니지만 온 사회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치러진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해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감옥으로의 긴 행렬을 잇고 있다. 어떤 학생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장기간의 수배 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온갖 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들이 도대체 왜 계속 감옥에 가야만 할까. 많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름만으로 장기간의 구속수배를 당해야 하며,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남한에 비판적이고 북한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처벌한다거나 급진적인 체제비판과 변혁의 주장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 하여 처벌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단순한 찬양, 고무, 동조 행위는 오히려 남북화해라는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급진적인 체제 비판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사상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제 통일'이나 '미군 철수' 주장도 그것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해서는 안된다. ... 이 주장을 바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연결해 처벌하는 것은 조급한 단선적 사고의 산물이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홀수대법관이 제시한 금언

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헌법의 원칙 가운데 다른 원칙보다도 우리가 중시해야 할 원칙은 사상의 자유의 원칙이다. 이는 우리의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를 뜻한다.

이 책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사회에서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바로 나와 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반공사상의 자유' 또는 '무(無)사상의 자유'로 왜곡되고 말았다. 이것을 깨뜨릴 때만이 우리 사회에서의 진정한 사상, 양심의 자유는 보장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볼테르의 말을 되새겨 보자.

김혜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소나기

이라크 국군 파병, 이렇게 생각한다



△절대 반대. 이라크 민중들이 미국의 패권과 석유를 위해 희생되는 일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더러워도 참아야 하는 게 미국의 횡포 아닐까(!?) 개인적으로 파병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라크 전에 반대하지만 한 미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비전투병이잖아요! 비전투병은 누가 지켜주나요? 비전투병이 가면 전투병도 곧 갑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파병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우리가 주한미군 자리에 잠시 보초! 이라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라크 전에 반대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왜하! 개죽음이다~ △석유 대신 연탄 쓰자!! △명분 없는 전쟁 우리의 입장에서 비전투병 파병이 최선의 선택인 듯 △우리나라가 약해서다 옛날 우리나라 광부들이 독일로 간 이유가 나라가 가난해서 아닌가. 그리고 지금 파병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냥 계속 국회에서 전쟁 끝날 때까지 토론해!!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도덕적으로 그런 일에 국익의 이유로 참가한다!... 제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참고 안돼! 살인자가 될 수는 없다. △아차피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라 명분을 얻을 수 없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린 짧은 피를 쏟을 수 없다. △실리를 추구하자! 파병도 보내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전후복구 사업도 한 자리 차지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취지도 잘 되게. △베트남에서의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파병을 막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미국에 예측되어 있음을 또 느낀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절차를 무시한 미국과 영국의 침략이 명백하다. 9.11사태 이후 소위 '잠재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그저 미국 자체의 논리이지, 국제적 정당성은 없다. 유엔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인 전쟁논리를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기능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2003년 이후 유엔은 더 이상 뉴욕에 본부를 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직은 '위기' 아니다

이러한 이라크전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시선은 남다르다. 지난 10월부터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사태는 한반도에 커다란 시련을 주고 있는데, 이라크전 발발 과정을 볼 때 한반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다만 민약을 위해 외교적·군사적 대비태세는 항상 철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동안 '한반도의 위기(설)'에 대해 자주 언급되었던 이유는 한반도 지형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개전 가능성이 또 다른 주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그 위기감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논단
진희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다음은 북한차례일까

한반도에 전쟁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주변국이 모두 반대하며, 만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세계대전으로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라크전과 같이 단독으로 개전할 경우 중국의 참전은 불가피해진다. 이것은 곧 핵전쟁의 위기를 의미한다.

최근 일본 보수우익의 차세대 주자인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의 정책공조 없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일본 보수우익 역시 부적절한 대북 침략전쟁

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쟁이 곧 일본을 전쟁터로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 역시 전쟁을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단독으로 개전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단독으로 개전할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력이 바다 수준에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원 없이 개전하는 것은 곧 자멸과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에서 미국이 승전하더라도 국가부채만 증가할 뿐이지 어떠한

실익도 없다는 점이다. 이라크전에 미국은 747억 달러(약 10조원)의 전비를 쏟아부었다고 한다. 이는 승전할 경우 원유개발 및 전후복구 등, 그에 못지 않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는 패하만이 남을 뿐이며, 따라서 전비는 고스란히 참전국가의 부채로 남을 확률이 높다.

'핵카드 제시'가 해법

이제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핵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겠다'는 북한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공으로 맞서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명분은 상호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중유지원 중단으로 인해 전력생산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력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테러국가에 대한 통제의 범위를 피하면서 전력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풀어 나갈 때 한반도의 '핵위기'는 해소될 것이다.

과도한 성 표현엔 "빠~"를 외치자

성폭력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술과 남녀가 공존하고 있는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폭력이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성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즐겁게 마시고 노는 분위기에서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동조하는 분위기에서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2의 성폭력이 생겨나게 한다.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책이나 자료집은 많았지만 그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준 곳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2003년 새내기 새로 배울터를 갔을 때 사회과학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대에서 처음 제시했던 '빠~문화'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함께하도록 했다.

'빠~'문화는 평소엔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빠~"라고 외치는 것이다.

'빠~'는 자신의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일상에서 성폭력을 재미있고 쉽게 지적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빠~'문화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사태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에게 함부로 '빠~'를 외칠 수 없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 표현을 보면서 '빠~'를 외치는 것 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싫어요"라는 말보다 "빠~"라고 외치는 것이, 지적하는 사람이나 지적을 받는 사람이나 쉽게 말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동아 내에서 (성폭력문제가 발생할 때) "빠~"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모습, 그리고 지적 받았을 때, 자기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김선영(사과대 사회3)

'사치품'으로 변해가는 핸드폰

당신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에 99.9%는 그렇다고 답하리라 확신한다. 어느 순간부터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식되어 성인은 물론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다. 그렇다면 핸드폰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언제든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화걸기와 전화 받기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의 기능은 휴대용 만능박사로 변해가고 있다. 휴대폰이 전화번호 저장의 기능을 넘어서 기념일, 메모 저장 등 간단한 수첩의 기

능, 게임이 내장 된지는 이미 오래 전이며, 인터넷이용은 물론, 사진 찍기, 동영상 찍기, 영화보기, 심지어 MP3기능까지 하는 것이 요즘의 핸드폰인 것이다.

흑백 플립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컬러 플터 핸드폰 시대가 도래해 어느새 몇십만의 화소를 외치고 있으며 단음에서 시작하여 40 화음 음악을 연주하는 요즘의 핸드폰.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가격도 날로 뛰고있어 도대체 이 조그마한 전화기 하나에 무슨 돈이 그리도 많이 드나

하지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법. 아무리 비싸더라도 찾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판매되는 것이 만물 박사 핸드폰이다.

점점 편한 것을 찾는 21세기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유용한 물건이지만, 단순한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 악세사리, 사치품 수준으로 넘어가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핸드폰. 하루 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종이 출시되다 싶을 정도로 어제 산 것도 구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존재. 만물 박사도 좋지만, 또다른 사치는 아닐지 생각해 봐야겠다.

김소영(사과대 신병3)

진보, 제대로 알고 말하자

나는 학내에서 시사토론반이라는 소모임 활동을 하는 평범한 학생이다. 세미나 소모임 성격상 매주 찬·반 두 입장을 가지는 시사적 쟁점을 주제로 삼기 때문에 항상 토론 시작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소위 말하는 보수나, 진보나 입장을 선명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전체 세미나 인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열에 여덟, 아홉은 진보, 개혁의 이름 아래 손을 들곤 한다.

반면 하나, 둘 정도의 보수 인원으로 반대편에서 손을 잡는 이들은 진보, 개혁 세력들의 맹 공세에 자칫 입장견지마저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췌이다.

그러나 나는 진보를 마치 자신들의 문화인양 단정짓고 그들과 다른 논리는 보수라 칭해 버리는 흑백논리에는 할 말이

없다. 또 스스로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솔직한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단순히 짧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하므로, 심하게는 많은 이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표방하는 논리는 진보가 아니다. 생각과 행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보적 논리와 문화를 향유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정중하게 자성을 권한다.

박진형(사과대 행정2)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안네의 가상편지 유익 다양한 보컬선거 기획

사회면의 미·영 이라크 침공관련 기사, '안네의 편지'가 눈에 띄었다. 왜 하필 '유대인 안네'이며 '이라크 친구'란 또 뭐란 말인가. 사실 제목 그 자체만으로 아이러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만드는, 짧지만 중동의 문제를 다룬 참신한 의도의 편지였다. 총학생회 보컬선거 기획은 다양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동대신문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사회자의 정해진 질의응답 형식이 아닌 좀더

다양한 토론자 참여와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대학의 문화생활을 다룬 기사도 관심을 끈다. 설문조사까지 덧붙인 노력은 좋아 보인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동대생의 1.4%는 문화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1.4%는 학과공부 우선 또는 시간 여유 없기 때문이다'에서 어떻게 '개인 생활을 우선시 하는 요즘의 '경향'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학내 공연을 본 이유에서도 '행사주체와 관계(33.4%)'만을 부각시켜 '학내 공연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는데 '흥미롭기 때문(33.3%)', '문화생활을 위해(20.3%)'를 너무 소홀히 취급했거나 처음부터 의도된 결론을 위해 애써 무시한 듯하다. 혹 지면관계상 자료가 생략되었거나 잘 이해 못한 필자의 탓인지도 모른다.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기에 다음 호에는 동태를 방문하는 탁났한 스님의 평화운동과 함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기사를 실는 것도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진환(개교100주년 기념사업단)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경계 00 민경미 생일 축하해
△하냐야 4월 4일 생일 축하해!!
지영아 너도 4월 18일 생일 축하해
△27기 유부식 회장님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학생회 동문회
△경축 새롭고 승헌, 새로운 커를 탄생
△혜선아 생일 축하해. -연경·현정
△총학생회!!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동국 JOY 첫 MT입니다~! -정양
△4월 3일 연우의와 강일이 300일입니다.
△태수아! 생일 축하한다. -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호2번 유영빈, 이상현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백만원
△산림자원학과 MT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96짱 세비스찬
△사회학과 집행부 MT 준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02태균
△삼승심보탱 OCD 다 써요. 이제 정보처

열심히 하시다

△전자공학과 99복학생들 열심히 하시다. △태승오빠, 용환오빠 힘내세요. -국교00
△국교과 교육실습 나가는 4학년들 잘 하고 오시다. -진숙
△닌경짱!! 스테디 열심히 하시다. △순일, 형욱! 공부 열심히 하자
△술기야 우리 싸우지 말자 600일 될 때까지 이제 70일 남았다. 내맘 알지?

그리고...

△지리교육과 4학년 교육실습 잘다녀오세요!! 멋진 선생님이 될게야 -지교짱
△기호2번 지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빈
△정원아 답사 잘 갔다와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3/31)	소고기해장국 (1500) 닭꼬치 구이 (1500) 공중떡볶이백반 (1500)	부대찌개 (1500) 카리볶음밥 (1300) 오징어무침 (1500)	김치찌개 (3200) 닭꼬치구이 (3200)
화(4/1)	갈비탕 (1500) 지장밥 (1300) 순살돈가스 (1500)	닭곰탕 (1500) 소고기피망볶음 (1500) 스파게티 (1500)	떡볶이불고기 (3000) 양장피장채 (3500)
수(4/2)	육개장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닭갈비볶음 (1500)	소고기장국밥 (1500) 오징어가스 (1500) 나물비빔밥 (1500)	생선가스 (3200) 제육볶음 (3200)
목(4/3)	소고기미역국백반 (1500) 오징어덮밥 (1500) 비빔밥 (1500)	설렁탕 (1500) 제육덮밥 (1500) 북어숙여찌개 (1500)	곰창전골 (3200) 열무비빔밥 (3000)
금(4/4)	감자탕 (1500) 하이리이스 (1300) 리조육 (1500)	돈육두부찌개 (1300) 햄야채볶음 (1500) 참치회덮밥 (1500)	오징어틀술밥 (3200) 생선구이백반 (3500)

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차도르'에 가려진 아랍의 문화를 찾아서

아랍 국가 생활용품·사진 등 전시회 열려 ... 실제 문화 이해 계기 마련

알라딘의 요술램프, 신밋드의 모험 등의 토대가 되는 '아라비안 나이트'는 우리에게 '천일야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가 접한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미 서양의 손을 거친 각색본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아랍 문화는 뭔가 매마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에 아랍의 문화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아랍을 찾아서'전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아랍친선협회(회장=이환의)와 주한 11개국 아랍 대사관의 주최로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개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본래 2년 전 기획됐지만 9.11 테러로 인해 미뤄졌고, 올해 들어 겨우 좁은 개막일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결국 아랍의 전통음식과 민속품 등을 소개하는 개막행사가 일일 취소되고 전시행사 진행만으로 간소화됐다.

각 나라별로 전시된 책자, 사진, 생활용품 등과 정부형태, 국교수립일, GDP 등의 세부사항을 곁들여 정치·역사 부분의 이해를 도왔다. 사막으로 뒤덮인 이집트, 모로코의 전시품들은 비교

적 친숙했지만 그 외 코너에서는 '낯선' 아랍을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쿠웨이트의 '인공섬'은 예술적 측면에서 유럽의 어느 관광지 못지 않았고 도시와 사막이 공존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레바논 전시 코너에서는 레바논에서 가져온 이슬람교 성서 '코란'과 현대 알파벳의 기원인 페니키아 문자가 적힌 돌 조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스키를 타는 사진은 기존 사막으로 대표되던 아랍에 대한 인식을 깨우기도 했다. 또한 아랍의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비디오 영상들과 전통상 '차도르'도 눈에 띄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라크 전쟁과 맞물려 아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몰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간단한 책자와 사진 전시에 그치고 있어 아랍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전시회가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극히 일부분의 아랍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서방 언

론을 거쳐야 접할 수 있던 아랍 소식은 테러와 기근으로 한정돼 우리의 머리 속에 아랍은 '번대륙'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랍은 중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해주고, 아시안 게임을 함께하는 분명 '가까운' 대륙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아랍친선협회 과장 구미란 씨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아랍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실제 아랍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서양에서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베일에 싸인 동양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동양문화권인 우리는 서양의 포장을 걷어내고 아랍 본래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인 이라크 바그다드가 폭격에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먼 산 불구경 하듯이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처럼 말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문화사회운동의 어엿한 주체"

민태호
경희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



7시 반, 눈이 반짝 뜨인다. 허, 늦겠다. 오늘은 국회 앞에서 이라크전 파병반대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다.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모내기'의 신학철 선생님, 김운수 민예총 회장님을 비롯해 영화배우 문소리 씨, 문화연대 강내희 교수님, 황신혜 밴드의 조윤석 씨 등이 같이 했다. 이승환 씨가 못와서 타격이 크다. 오늘 잡힌 기자회견은 총 3건. 의료병 파병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기자회견과 파병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요즘 내 일정은 운동 반전과 관련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는 다른 문화예술단체 활동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2시, 기자회견과 집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사무실로 들어왔다. 오후에 있을 민족예술인 결의대회의 결의문을 쓰기 시작했다. 고은, 황석영 등 원로들이 낭독하게 될 문서다. 심혈을 기울여 쓰고 고치고 다시 쓰기를 거듭해 팀·국장에 검토를 받았다.

4시, 최병수 선생님이 오셨다. 이라크에서 반전평화팀 활동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약간 애소한 인상이다. 이라크에서 건너온 걸개그림을

선뜻 내어준다. 그리고 부시를 메두사로 형상화한 그림을 복사해 주셨다. 이걸 하도브드지에 붙이고 복사한 것을 손으로 들면 그림이 좀 나오겠다.

5시 반, 세종문화회관에 택시를 타고 갔다. 음향 준비하고, 장소 세팅하고 미리 온 출연진과 인사를 나눴다.

6시 20분, 할레발떡 학교로 뛰어간다. 나는 대학원에서 현대미술경영을 전공하고 있다. 오늘 수업은 '국제전시 기획론'과 '박물관 미술관 정책과 행정연구'. 상하이 비엔날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타이페이 비엔날레 등 아시아의 국제비엔날레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상하이 비엔날레는 한문으로 쌍년전(雙年展)이라고 한다. 이스탄불 비엔날레를 아시아의 비엔날레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결국 동서양의 만남이 꾸준히 이어진 곳, 오리엔트가 시작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0시 반, 수업이 끝났다. 미술교육에 대한 논의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수업 시간이 30분이나 지난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하루가 또 간다.

문학단신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세계 여성영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오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 나다,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7개 부문 120여편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젊은 여성영화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영상으로 표현된 도전적이고 젊은 에너지를 주제로 한다. 특히 '새로운 물결' '딥포커스 - 여성 실험영화·비디오' 부문을 통해 젊은 여성영화의 파워와 실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으로는 박경희 감독의 장편데뷔작이자 임순례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은 '미소'가 선정됐고 감독특별전 등 3개 부문 특별전도 진행된다.

한편 미국인 공연예술가 드래드게레스턴트 등 초청을 받은 외국인 20여명은 북핵문제로 인해 방한을 꺼리고 있다. 문의 583-3598~9

서울영상벤처센터 폐쇄

문화관광부는 지난 28일 '서울영상벤처센터'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영상벤처센터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분야 벤처사업을 집적화해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98년 설립됐다. 문화부는 그동안 45억6천만원을 투입해 입주업체들의 관리비, 영상실과 회의실무료사용,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참여부족과 본래 목적 상실, 경제적 어려움, 사업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والعالم العربي

"고향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 그럴 수 없소..."

다큐멘터리 영화 '하늘색 고향' 개봉 ...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의 삶 조명



우리나라를 떠나 원동(블라디보스토크)에 자리잡았던, 그리고 어떻게 정착한 그 땅에서 합당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낯선 땅으로 강제 이주 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하지만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이름, '고려인(카레이스키)'.

얼마전 이들의 아픔을 표현한 영화가 개봉돼 화제가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000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한국 최우수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하늘색 고향'이다. 이 영화는 제작 후 2년간 상영 극장을 찾은 끝에 광화문 아트큐브 극장에서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

"3일 동안에 이주할 모든 준비를 끝내라고 하니,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영화는 강제이주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1937년 당시 소련은 고려인이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고려인들에게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이주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에 한인들에게 통보됐으며 이로 인해 고려인

들은 간단한 살림살이와 곡식의 씨앗만을 갖춘 채 이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역경의 시작일 뿐이었다. 고려인들은 여객열차가 아닌 화물열차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열차 내에 화장실이 없었음은 물론 먹을 것과 식수조차 없는 상황의 한 달.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한인들이 죽음을 맞았으며 아이들의 경우 열차 바퀴에 깔려 죽거나 아사하는 일도 허다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고려인 화가 신순남 씨의 작품 '레퀴엠'을 통해 기록됐다. 밀그림을 완성하는 데에만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총 30여 년 간의 작업을 통해 완성된 레퀴엠은 당시의 상황을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순남 화백은 "모든 것을 앗긴 사람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당시 고려인들의 생활은 힘들고 절박했다.

그들의 어려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실직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하늘색 고향'을 기획, 감독한 김소영(31) 씨는 "고려인들은 고향 땅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현직 한국계 기업에서 고려인을 고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하늘색 고향'을 담은 채로 어려움을 견뎌왔던 또 하나의 한국인. 이제 그들에게 고향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야 할 때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4. 19혁명 43주년 기념 추모식 및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안내

- 4. 19혁명 43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 4. 19기념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동국가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시간	행사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08:30	등산대회 단체팀 확인	안내책자 수령 및 '산불조심리본' (행사 분부에서 제공) 착용
10:00	4.19혁명 43주년 기념 추모식 (헌화, 분향, 무념)	참가자 전원 4.19 기념탑 앞으로 이동 후 합동 분향
10:20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식	
10:30	등산대회 출발(북한산)	
12:20	중식시작(대동문)	중식 시간(12:20~13:30) 엄수 및 파도한 음식 삼가(시상 기준)
13:30	전원 출발(하산)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15:20	폐회식 장소 도착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	폐회식 장소 도착 시간 엄수 (시상 기준)
15:30	시상식 및 폐회식	
16:00	해산 및 정리	귀가 시간에 맞춰 대중 교통 증차 예정

-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중식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과음 절대 삼가
-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 6.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 → 백련사매표소 → 대동문 → 북국문 → 중성문 → 대서문 → 북한산성매표소 → 한신성매표소 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6. 행사내용 : 4. 19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 7. 교통편 :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 10분) 27번, 127번(우회환)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국립 4.19묘지 입구 (운행시간 : 08:00~09:50까지)
- 8.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 9. 팀구성 :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 시 가산점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총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등) ※ 상기의 교직원 단체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부서는 4인1조로 팀을 구성 (홍보실, 단과대학 교학과, 각 대학원 교학과(과), 각 부속기관 등)
- 10. 시상 : 가. 4인1조팀 : 총12팀 시상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 단체팀 : 금상 1팀(W1,000,000), 은상 2팀(각 W500,000), 동상 3팀(각 W300,000) 다. 동아리 단체팀 : 2팀 각 W300,000 라. 교직원 단체팀 : 금상 1팀(W500,000), 은상 2팀(각 W300,000)
- 11. 접수기간 : 2003. 4. 1(화) ~ 4. 16(수), 09:00 ~ 17:00
- 12. 접수처 :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 13. 유의사항 : 가. 단체팀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나. 학과 단체팀 및 동아리 단체팀은 반드시 참가자 명단 제출 (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또는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다. 학과 및 동아리 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 준비 라.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됨.(우산이나 우의는 개별 준비) 마. 도시락은 각자 준비(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 이번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는 참가자 기념품을 배포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라오며, 4.19 기념행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체비평

영화 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정식권 타락성 풍자 동기부여 실패로 설득력 잃어”



윤라녀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도 가끔 간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사회의 최저층부에 속해 있는(혹은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틀이면 윤라녀 같은 이들이든 그 ‘국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어느 윤라녀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겪는 일들을 그린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바로 그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주며 출발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포르노 배우 출신으로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치치올리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윤라녀는 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냐고 하는 영화의 출발점은 기존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다. 영화는 상대 당의 의원을 윤라녀를 시켜 복사시켜버리는 전략을 보여주는 시작부터 정치관은

더러운 음모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정치권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의원 뺨지를 달고 있는 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며 민심을 말 그대로 ‘살려고’ 할 뿐이고 또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는 조폭이라고 불려도 이의를 달지 못할 만큼 무지막지한 인물이다. 의원 자리에 오르기 위해 서러면 무슨 일이든 불사할 듯한 이들 타락의 정점에 있고 그래서 바로 같은 정치인들은 심지어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회피를 조장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정치상황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꽤나 용감한 면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스토리 전개 의 논리는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은가 싶

다. 기존의 정치 상황이 이처럼 타락의 끝까지 갔으니 무언가 신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래서 영화는 배운 것 없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일을 하지만 의리 있고 용감하고 정직한 윤라녀 고은비(에지윈)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다. 윤라녀는 정말 신뢰할만한 인물인가? 물론 기존의 더러운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낫긴 하겠지만 전적으로 믿음만한 인물 같지는 않다. 주인공에 대한 이런 불신은 상당 부분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영화가 가진 결함으로부터 나온다. 정치 의식적으로는 과감하지만 영화적으로는 세련됨과 거리가 먼 이 영화는 도무지 인물을 제대로 형상화할 줄을 모른다. 우선 고은비가 남몰래 생각도 못할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더니 이후 정치적 각성에 이를 때

에도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영화는 “실오라기 하나 없는 완벽한 누드 정치”니 “체위 변화”니 하며 또 다른 공약을 남발할 뿐이다. 대중영화의 어법에 충실하게 영화는 우리의 고은비 후보가 역경을 뚫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그 후를 상상해봤을 때 그녀의 국회 진출은 아무래도 불안해 보인다. 그건 영화 내적인 논리가 고은비라는 인물의 정당성을 획득시켜줄 만큼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저 하나의 드문 해프닝 정도로 평가될 듯하다. 예지윈의 국회의원사당 월담 사건이 무언가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해프닝에 불과했듯이. 홍성남 영화평론가

인간은 색을 만들고 색은 인간을 디자인 한다



지난해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애국심과 대규모의 축구 경기장, 그리고 바로 붉은색의 티셔츠이다. 이제 그것은 옷장을 열면 누구나 한 벌씩은 가지고 있을만한 아이템이 됐다. 붉은 악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은 붉은색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변화시켜 놓은 것이다. 과거 붉은색은 ‘레드 콤플렉스’라는 명목으로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 꼽혔다. 그러던 붉은색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 백의민족이라는 전통을 가진 백색보다 더 민족적인 색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색의 사회·문화성

색에는 사회의 사상과 문화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선호하는 색도 부모의 색 선호도,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자

연환경, 역사, 정치적 경향 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풍토의 변화가 심하고 황사가 많은 중국의 경우 강한 느낌을 주는 원색 계열의 채도가 높은 색을, 습기가 많은 일본은 붉은 색 계열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색 선호에 대한 근거들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원색보다는 무채색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 흑색, 백색, 파랑색 순으로 꼽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염료가 들지 않는 경제성과 유교사상에 따라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친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는 성향도 그 근거들이다. 우리가 백색을 선호하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에서 프랑스는 파랑색, 뉴질랜드는 녹색을 선호한다.

다원적인 색의 상징

색의 상징 역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강함, 혁명, 위험을 상징하는 붉은색, 냉담, 고독, 추위를 상징하는 파랑색처럼 일반적 상징을 지닌 색이 있는가 하면 나라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의 상징을 갖는 색도 있다. 그 예로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이 독일에서는 ‘녹색을 몸에 칠하면 열소가 먹여치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리석음을,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색은 경박을 상징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색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관련 도서들도 봇물 터지듯 출판되고 있다. 분야 또한 경영학, 심리학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와 동시에 고급문화의 대표적인 코드로 ‘미니멀리즘’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 자동차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심플한 디자인과 무채색의 색상으로 변화하는 추세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강한 느낌의 원색이 많아지면 오히려 인간이 색의 개념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색깔공포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인간과 색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색의 아름다운 향연만을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색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찾아보자. 바이흐로 인간은 수많은 색을 창조하고, 색은 인간을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컬러리스트 김민경 교수를 만나

“나에게 맞는 색을 알면 백전백승이지요”

색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색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컬러리스트 1호, 한국 케임색채디자인 연구소장 김민경(숙명여대 색채학) 교수를 만나 색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색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는.
= 1977년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색’에 관심을 갖게 됐다. 색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프랑스에서 색에 대해 공부하고 벨기에, 미국 등에서 연구생활을 했다.

- 색이 중요한 까닭은.
=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색에서 비롯된다. 이는 검은색·어두운 색에서 혼돈이나 어려움, 흰색·밝은 계통의 색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더 적합한 색을 갖고 있는 물건이 좋게 보이기 마련이며, 사람에 대한 호감 정도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환경, 위치 등에 알맞은 색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맞게 결정된 색이나 색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게 된다.

- ‘컬러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외국의 경우 제품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제품의 색깔은 컬러리스트가 결정하는 일이 허다하다. 제품의 특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행하게 될 색깔을 예견하기도 한다. 컬러리스트는 말 그대로 색에 대한 전문가로서 흔히 사용하는 커피 잔의 색깔에서부터 패션, 메이크업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사람들에게 색을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성인남녀의 50만 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색은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성 기자
yean@dongguk.edu

선택한 색을 보면 당신의 심리가 보입니다

감성적 원리 이용한 색채심리학 유용성 증가 ... 관련 연구 더욱 활발해져야

인간의 시각정보처리체계는 색채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각심리학에서 하고 있다. 색채심리학이라 할 때에는 지각심리학에서 밝혀낸 이론에 기초하여 색채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 갖는 그 밖의 효과와 응용방법을 연구한다. 색채가 우리의 마음에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독일의 학자 뒤서는 색채를 이용해 사람의 심리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발되지는 않아 이 분야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색채가 사람의 여러 심리적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 문화대학의 사토 교수는 색광이 인간의 내분비계에 주는 효과와 그 산업적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색채심리학에서 다루는 좀더 일반적인 기본적인 주제는 색채의 심리적 혹은 감성적 효과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사회

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오래전 일본에서도 주 5일제 근무 실시와 더불어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색채의 심리적, 감성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었다.

“어떤 색의 옷을 입어야 어울릴까”, “어떤 색의 벽지가 가구와 어울릴까”와 같은 질문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질문은 일반인부터 전문디자인자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색채심리학에서 찾고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크라이틀러의 ‘긴장-이완’ 이론은 배색의 심리적 원리를 꽤 잘 설명하고 있고 이 이론에서 어떻게 배색하는 것이 미적으로 유리하다는 구체적인 제언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것과 몇 개의 다른 이론을 결합하여 미적인 면에서 배색을 도와주는 ‘사이버 컬러 컨설턴트’를 개발 중이다.

당장 산업적 응용의 더 큰 주제는 색채의 감성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감성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는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이상 미적 효과를 제외한 색채의 이미지만을 말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이커들은 다른 브랜드와 차별된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하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까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색채와 감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관련된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각 도구마다 각기 다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장단점도

다르다. 필자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도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상형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기제가 기업이나 브랜드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라고 보는 이 이론은 다른 배색 이미지 도구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배색을 제안하고 사용하기가 쉽다.

색채심리학은 최근 들어 그 유용성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이다. 색채심리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수요도 매우 크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분야 연구자가 거의 없다.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지상현
한성대 미디어 디자인학부 교수



메아리

우격다짐

▲“내 개그는 사장님 농담이야.” “왜요?”

“역지로 웃어주지.”

KBS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격다짐’이라는 개그 중 하나다. 이 개그의 모미는 과정의 줄거리보다 마지막에 터뜨리는 “내 개그는 00야”라는 엉뚱한 점의 뒤에 붙는 통쾌한 해석에 있다. 이 개그가 인기를 얻으면서 무명 개그맨이었던 이정

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그콘서트의 ‘히든카드’로 발돋움했다.

▲요즘 영화계 초미의 관심사는 ‘CJS’ 연합이다. 올해 초 시네마서비스의 대주주인 플래너스가 CJ엔터테인먼트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네마서비스는 막강한 투자자본을, CJ엔터테인먼트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영화제작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13일 문화연대, 스크린문화연대, 전국언론노

동조합 등 문화예술 사회단체가 CJS 연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략적 업무협상 체결각서(MOU)에 대한 인수 협상의 최종 결정은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까지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영화 시장점유율 22.3%로 국내내급사 1위를 차지한 시네마서비스와 18%로 2위를 차지한 CJ엔터테인먼트가 연합할 경우 전체 40%, 한국영화판 따지면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는 곧 한국 영화시장 독점을 의미한다. 영화체인 CGV를 소유한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시네마서비스는 거대 자본을 투입해 블록버스터를 제작할 수 있었지만 저예산으로 ‘돈과 거리가 먼’ 영화를 만드는 군소 영화사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거대자본을 투입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 관객들의 문화적 선택권을 축소시

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체가 되는 한국 영화계의 ‘히든카드’가 아닌 ‘엘로카드’를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디 눈 앞의 이익을 좇아 ‘우격다짐’을 위치기보다는 한국영화계 전체를 생각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CJS는 건전지야.” “왜냐구?” “힘세고 오래가는 게 좋은 것인줄 알거든.”

김하나 문화부장
sellyone@dongguk.edu